점령기 경제와 통화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식민지 은행 제도의 종말

일본의 점령은 제B편 제II장에서 서술한 은행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연합국 계열 은행을 폐쇄했고, 결국 거의 모든 유럽계 은행을 청산했습니다. 이들 은행이 전전(戰前) 은행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예금 은행업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영국령 말라야에서는 일본의 포고령에 따라 12개 적성 은행이 청산되었으며, 그중에는 홍콩상하이은행(Hongkong and Shanghai Bank), 차타드은행(Chartered Bank),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1]

요코하마정금은행(Yokohama Specie Bank)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정부의 대리인이 되었고, 군부와 도쿄 대장성이 은행업을 조직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계 은행은 1942년과 1943년에 걸쳐 영업 재개가 허용되었지만 실제 거래는 비교적 적었습니다.[2] 제B편 제III장에서 그 역사를 살펴본 싱가포르의 화교 은행들은 기관으로서는 살아남았지만 기능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예금은 통화와 함께 가치를 잃었습니다. 고객들 역시 누구나 가치 하락을 예상하는 화폐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일부 화교 은행가는 선견지명을 갖고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화교은행(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의 탄친투안(Tan Chin Tuan)은 점령 이전에 은행의 예금, 주식 및 증권을 싱가포르에서 영국으로 옮겼고, 전쟁으로 인한 손상에 대비해 기록을 이중으로 보관했습니다. 1942년 그는 OCBC의 본점을 중국에 재건하는 임무를 맡아 바타비아와 랑군을 거쳐 육로로 충칭까지 이동했습니다.[3] 이 일화는 오늘날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업무연속성계획의 초기 형태를 보여줍니다. 점령 세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자산과 기록을 보관한 은행은 전후 대차대조표를 거의 온전히 유지한 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나 머니

1939년부터 말라야달러를 발행해 온 통화위원회는 점령자에게 쓸모가 없었습니다. 블래킷 보고서(Blackett Report) 이후 수립된 이 제도는 해협 달러와 등가이고 2실링 4펜스로 파운드화에 연동된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준비금은 런던에 보관되어 있어 일본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령 세력은 자체 통화를 발행했습니다. 달러 표시 군표가 말라야달러와 등가로 발행되어 1942년에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4]

이 지폐는 10달러권에 그려진 바나나나무에서 따온 조롱 섞인 이름인 바나나 머니로 불렸습니다. 일본 스스로도 "끔찍하다"고 인정할 만큼 인쇄 품질이 조악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품질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지폐가 많아 위조가 널리 퍼졌습니다. 1942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1943년부터 남방개발금고(Southern Regions Development Bank)가 발행을 넘겨받았습니다. 남방개발금고는 원래 자원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기관이었습니다. 지폐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여전히 도쿄에서 인쇄되었습니다.[5]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점령 직후 일본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는 엔화를 재평가하여 동남아시아 각 통화 1단위를 1엔과 같게 정한 것이었습니다. 1937년 환율과 비교하면 엔화는 이 지역 통화에 대해 35%에서 101%까지 가치가 올랐고, 그 결과 동남아시아의 상품은 일본에게 값싸졌습니다.[6] 이처럼 환율은 수탈의 첫 번째 수단이었고, 곧 인쇄기가 두 번째 수단이 되었습니다.

병행 유통에서 독점으로

점령 후 약 1년 동안은 전전 식민지 통화가 군표와 함께 등가로 유통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레셤의 법칙이 작동했습니다. 주민들은 새 지폐를 쓰고 옛 지폐는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통화는 법정통화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공개 시장에서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943년에 이르러 경제는 일본 지폐로 돌아갔습니다. 1942년 말 무렵부터 일본 행정당국은 강압을 더했습니다. 전전 통화의 사용이 금지된 뒤에는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되었고, 체포는 물론 흔히 고문,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7]

점령 통화의 독점은 무력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출 시장이 사라진 고무와 주석의 유일한 시장은 일본의 독점 매입 조직이었습니다. 일본을 위해 일하는 생산자와 노동자는 군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고, 배급품을 얻고, 복권을 사려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군표가 필요했습니다.[8] 따라서 바나나 지폐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매일 사용하는 지급수단이었습니다. 화폐의 거래 기능과 가치 저장 기능 사이의 이러한 구분이 이 경험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인쇄기와 물가

일본 행정당국은 주로 자체 필요를 위해 화폐를 찍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지폐를 더 찍었고, 새로 발행할 때마다 통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크라토스카(Kratoska)는 남방개발금고, 즉 *Nanpo Kaihatsu Kinko*의 지폐 발행액을 1945년 8월 10일 기준 38억 1,679만 4,000달러로 추산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이에 비해 침공 이전 영국의 발행액은 2억 3,880만 4,963달러였습니다.[9] 두 수치는 대상 지역과 시점이 달라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규모의 차이는 발행이 얼마나 대규모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제사학자들은 통화와 물가의 관계를 더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허프(Huff)와 마지마(Majima)에 따르면 점령 말기 말라야의 통화량은 점령 초기의 25.1배였던 반면, 싱가포르의 물가는 11,226.5배 상승했습니다. 물가는 월평균 16.3%, 점령 마지막 해에는 월 30.5%, 마지막 두 달 동안에는 월 86.8% 올랐습니다. 이들의 싱가포르 물가 시계열은 일본은행 도매물가지수와, 전후 영국 당국이 일본 측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생계비지수를 결합한 것입니다.[10]

쌀값은 이러한 배율이 가계에 어떤 의미였는지 잘 보여줍니다. 쌀 100근, 약 60킬로그램은 전쟁 전 5달러였지만 1945년 8월과 9월에는 5,000달러가 되었습니다. 배급표로 성인은 한 달에 쌀 5킬로그램, 어린이는 2킬로그램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성인 배급량은 나중에 4분의 1이 삭감되었습니다. 고구마, 타피오카, 얌이 주식이 되었고 쌀, 고기, 의약품의 암시장이 생겨났습니다.[11]

허프와 마지마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기는 했지만 맨 마지막에 이르기 전까지는 엄밀한 의미의 초인플레이션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1945년 말라야의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20%대 후반에 이르렀지만, 8월 전쟁 막바지 며칠 전까지는 40%에 근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화폐의 거래적 수요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구매에 필요했기 때문에 바나나 지폐를 계속 보유했지만, 가능한 한 적게 보유했습니다. 1945년 8월 말라야의 실질화폐잔고는 점령 초기 수준의 2.0%에 불과했습니다.[12]

화폐로부터의 도피

당대의 관찰자들은 이 수치에 반영된 행태를 기록했습니다. 1946년 말라야의 작가 친키온(Chin Kee Onn)은 일본 지폐를 대량으로 보유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부유하다는 착각에 빠졌다"고 썼습니다. 재산을 모은 사람들은 재빨리 이를 상품과 상당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본 은행의 사무원들조차 기회가 있으면 용돈을 영국 통화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13]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지폐의 가치는 전선의 소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친은 추축국이 패배할 때마다, 그리고 미군 B-29 폭격기가 찾아올 때마다 물가가 뛰었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판, 이오지마, 마닐라, 랑군, 오키나와는 인플레이션의 도약대였다"는 것입니다. 연합국의 선전은 일본이 항복하면 점령 통화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함으로써 이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일본 측 분석가들은 지폐 가치 하락의 원인 일부를 이 선전 탓으로 돌렸습니다.[14]

화폐가 가치 저장 기능을 유지한 경우, 그 기능은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전전 통화로 넘어갔습니다. 싱가포르의 암시장에서는 해협 통화가 더 널리 사용되었습니다.[15] 이는 부재한 정부에 대한 놀라운 신임 투표였습니다. 옛 통화의 발행자는 패배하여 쫓겨났지만, 그 지폐는 여전히 선호되었습니다. 점령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된 준비금이 뒷받침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영국의 귀환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제A편 제V장에서 설명한 씨족, 방언, 개인적 평판에 기반한 비공식 신뢰 네트워크가 이 숨은 화폐가 유통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권, 도박과 세금

일본 행정당국은 세입을 늘려 지출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억제하려 했습니다. 세금에는 주로 화교 사업가에게 부과된 "자발적" 헌금, 복권, 그리고 도박, 놀이공원, 투계장, 자전거, 손수레, 택시 댄서, 식당과 커피숍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었습니다. 1944년 3월 말라야에서는 "대대적인 저축 운동"이 벌어졌습니다.[16]

복권은 이러한 노력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도박을 장려한 군정 아래에서 거리마다 도박장이 생겨났습니다. 군정은 1942년 장당 1달러에 쇼난(Syonan) 복권을 발행했습니다. 이어 1943년에는 수익의 5분의 2를 지역 복지와 공공시설에 쓴다는 명분으로 말라야 전역에서 복권을 판매했습니다. 당첨금은 점령의 금융 대리인 역할을 한 바로 그 기관인 요코하마정금은행이 제공했습니다.[17] 복권은 구매력을 흡수했고, 꾸준히 가치를 잃어 가는 통화로 일확천금을 노려볼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복권은 또한 은행 제도가 의존하는 절약 습관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투기 문화를 일상화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상품 경제의 붕괴

통화가 붕괴하는 동시에 실물경제도 위축되었습니다. 전시 말라야의 GDP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허프와 마지마는 생산이 아마도 최소 절반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942년 고무 생산량은 1937년부터 1939년까지 평균의 약 4분의 1이었고, 1944년 주석 생산량은 1930년대 후반 수준의 17.5%에 불과했습니다. 제B편 제IV장에서 검토하는 상품 교역, 즉 중계무역항 싱가포르의 번영을 떠받쳤던 교역은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고무와 주석은 일본 측 매입자에게만 팔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마지막 일본 유조선 호송선단은 1945년 3월 19일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18]

주

1. Gregg Huff and Shinobu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of Southeast Asia”, University of Oxford Discussion Papers i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No. 109, 2012년 10월, 3면(수정본은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73, no. 4, 2013, 937–977면에 게재): 연합국 계열 은행이 폐쇄되면서 “the closure, and eventual liquidation, of almost all European banks”로 이어졌고, 그 결과 “deposit banking in Southeast Asia was largely eliminated”. Paul H. Kratoska, “Banana Money: Consequences of the Demonetization of Wartime Japanese Currency in British Malay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23, no. 2, 1992년 9월, 322–345면, 주 25(Cambridge Core에서 참고 주석 확인, 2026년 11월): 홍콩상하이은행, 차타드은행, 중국은행을 포함한 12개 적성 은행이 일본의 포고령에 따라 청산되었습니다. ↩

2.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3면: 아시아계 은행은 “were allowed to re-open during 1942 and 1943”이었으나 “did relatively little business”; 요코하마정금은행은 “the Japanese government’s agent in Southeast Asia”가 되었습니다. ↩

3. ISEAS–Yusof Ishak Institute Library, “War Correspondence – A Record Group of the Tan Chin Tuan Private Paper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은 “the deposits, stocks and securities from Singapore to Britain prior to the Japanese Occupation”을 옮기고 기록을 이중으로 보관했으며, 1942년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to re-establish OCBC’s head office in China”되어 바타비아와 랑군을 거쳐 충칭으로 이동했습니다. ↩

4. Wikipedia, “Malayan dollar”(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말라야 통화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 of Currency, Malaya)는 “came into being in October 1938 following the Blackett Report”; 말라야달러는 1939년에 도입되어 해협 달러를 등가로 대체했으며, 2실링 4펜스 스털링에 연동되었습니다. Wikipedia, “Japanese government-issued dollar in Malaya and Borneo”(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이 지폐는 말라야달러와 같은 가치로 발행되어 1942년에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주민들은 새 통화의 사용을 강요받았습니다. ↩

5. Wikipedia, “Japanese government-issued dollar in Malaya and Borneo”(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이 통화는 10달러권의 바나나나무 도안을 따서 “banana money”(말레이어: *duit pisang*)로 불렸습니다.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4면: 인쇄 품질은 “was, the Japanese acknowledged, ‘appalling’ and it deteriorated as the war continued”; 점령 통화는 말라야와 인도네시아에서 “banana money”로 불렸습니다. Wikipedia, “Japanese government-issued dollar in Malaya and Borneo”(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ounterfeiting was widespread because many notes lacked serial numbers.”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4면: 남방개발금고는 “started issuing scrip in April 1942, although in some areas not until 1943”; 지폐는 “remained identical to those used by the military and the Yokohama Specie Bank and were still printed in Tokyo”. ↩

6.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3면: 일본은 “a unit of each of Southeast Asia’s currencies equal to one yen”으로 정했으며, 1937년 환율과 비교하여 “the yen gained in value by between 35% and 101%”.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7.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4면: “Over the first year or so of the war in the military-occupied countries, pre-war colonial currencies were allowed to circulate at par alongside Japanese military scrip.” Kratoska, “Banana Money”,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23, no. 2, 1992, 322면(Cambridge Core에서 발췌문 확인, 2026년 11월): 전전 영국 통화는 법정통화로 남았으나 공개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졌으며, 1943년에는 경제가 일본 지폐로 운영되었습니다.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5면 및 20면: 군표는 그레셤의 법칙과 “strong Japanese coercion beginning around late 1942”를 통해 식민지 화폐를 공개 유통에서 몰아냈으며, 전전 통화의 소지는 “was deemed criminal and punishable with arrest, often torture, or even death”. ↩

8.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20–21면: 독점 매입 조직은 “became effectively the only market for pre-war export staples like rubber and tin in Malaya”; 거의 모든 사람이 세금, 배급품, 복권을 위해 군표를 필요로 했습니다. ↩

9. Wikipedia, “Japanese government-issued dollar in Malaya and Borneo”(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행정당국은 수요에 따라 화폐를 공급하기 위해 지폐를 더 찍었고, 이로 인해 초인플레이션과 심각한 가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5면: 군표를 통한 일본으로의 자원 이전은 “involved nothing more than printing the required amount of currency”. Kratoska, “Banana Money”, 1992, 주 3 및 주 14(Cambridge Core에서 참고 주석 확인, 2026년 11월): 1948년에 회수되어 통용이 정지된 침공 이전 영국의 발행액은 2억 3,880만 4,963달러로 추산되었으며, Nanpo Kaihatsu Kinko의 일본 지폐 발행액은 1945년 8월 10일 기준 38억 1,679만 4,000달러에 달했습니다. ↩

10.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18면 및 표 5: 말라야의 경우 점령 초기 대비 점령 말기의 물가 배율 11,226.5, 통화량 배율 25.1; 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16.3%, 마지막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해 월 30.5%, 마지막 두 달 월 86.8%; 물가는 싱가포르 기준입니다.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부록: 1944년 12월까지 싱가포르 물가는 일본은행 도매물가지수에 따른 것이며, 전후 영국 당국이 작성한 "Validity of contracts entered into before an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National Archives, Kew, CO853/726/3의 생계비지수와 연결되었습니다. ↩

11. Wikipedia, "Japanese occupation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쌀값은 100근(약 60kg)당 5달러에서 1945년 8–9월에는 5,000달러로 올랐으며, 배급표로 성인은 월 5kg, 어린이는 월 2kg의 쌀을 받았고, 성인 배급량은 25% 삭감되었습니다. Wikipedia, "Japanese occupation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통제경제의 제한으로 쌀, 고기, 의약품의 암시장이 생겨났고, 고구마, 타피오카, 얌이 주식이 되었습니다. ↩

12.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18면: 말라야의 인플레이션은 "although in 1945 often at monthly levels in the high twenties, never approached 40% monthly inflation until the final days of the war in August".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19–20면 및 표 5: "By August 1945 in Malaya, real balances stood at 2.0% of their level at the onset of occupation." ↩

13.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21면, Chin Kee Onn, *Malaya Upside Down*(Singapore, Jitts & Co., 1946), 45면 인용: "only the most stupid were lulled into a sense of wealth"; 다른 이들, 즉 "who had amassed 'fortunes' quickly changed the paper money into commodities, and substantial investments".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21면: "given the opportunity even the clerks in Japanese banks changed their pocket money into British currency". ↩

14.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21면, Chin, *Malaya Upside Down*, 45면 인용: "Every time there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was an Axis defeat, particularly Japanese defeats, prices of goods jumped up … Saipan, Iwojima, Manila, Rangoon, and Okinawa were inflation spring-boards".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19면: 연합국의 선전은 "repeatedly stressed that scrip would become worthless after Japan surrendered"였으며, 일본 측 분석가들은 군표 가치 하락의 원인 일부를 이 전술 탓으로 돌렸습니다. ↩

15.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21면: 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남아 있는 한 "this largely devolved to pre-war currencies exchanged among those considered trustworthy". Wikipedia, "Japanese occupation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암시장에서는 해협 통화가 더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

16.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10면: "in March 1944 a 'gigantic saving campaign' in Malaya"; 세금은 "included 'voluntary' gifts, levied mainly on Chinese businessmen, lotteries, and taxes on gambling, amusement parks, cockpits, bicycles, hand carts, taxi dancers, restaurants and coffee shops". ↩

17. Roots.gov.sg (National Museum of Singapore), "A $1 'Syonan Shoken' lottery ticket", 소장번호 1995-00520(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일본 군정은 말라야에서 도박을 장려했으며, 복권은 1942년 장당 1달러로 처음 발행되었고, 1943년에는 수익의 5분의 2를 지역 복지와 공공시설에 쓰는 조건으로 말라야 전역에서 발행되었으며, 당첨금은 Yokohama Specie Bank Ltd.가 제공했습니다. ↩

18.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14면: 말라야의 GDP는 "probably fell by at least half and perhaps more"; 1942년 고무 생산량은 1937–39년 평균의 약 4분의 1이었으며, 1944년 주석 생산량은 "only 17.5% of late 1930s levels". Huff and Majima, "Financing Japan's World War II Occupation", Discussion Paper No. 109, 14면: 고무와 주석은 "became largely unsaleable except for Japanese buying"; 같은 문헌, 7면: "the last Japanese tanker convoy for Japan left Singapore on 19 March 1945".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